

“광주일보는 세상 보는 눈 밝혀주는 오래된 절친이죠”

광주일보 40년 애독자 이봉규 치과원장

신문 펼치며 하루 시작... 12·12 사태·5·18 등 역사 함께 해 지역민 정서 오롯이 담겨 친근... 문화매거진 '예향'도 열혈 구독

광주시 백운동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이봉규(59·서구 차평동) 원장은 매일 오전 9시 광주일보를 읽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호남 지역, 광주는 역사적 흐름에서 보면 늘 소외된 피해자였어요. 방송에서도 편파적인 이야기만을 보도하던 시절, 지역민의 가슴 아픈 심정을 대변해 준 것이 광주일보였지요. 호남 지역 중 가장 인기 있는 신문이 광주일보이기도 했습니다.”

20대 당시 생나팔 기사와 만화, 만평을 제일 먼저 챙겨보던 이씨는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분야 모두를 고루 살펴보는 애독자가 됐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실시간으로 뉴스를 접할 수 있는 시대지만, 이씨는 종이 신문을 고집한다. “신문을 읽는 것은 종이책을 읽는 것과 같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신문만의 장점이 있어 찾아보게 된다”는 설명이다.

“인터넷 기사는 정독이 잘 안 되고, 씩 읽어본 뒤 금방 잊어버리곤 해요. 반면에 신문을 읽을 땐 주변 풍경도 눈에 들어오고, 촉각·소리·냄새 등을 함께 느끼며 입체적으로 읽게 됩니다. 그 덕인지 신문 기사는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깊이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되는 것도 장점이지요.”

이씨는 기억에 남는 기사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되며 광주 지역거점병원 대구의 확진 환자들이 찾아오던 날의 기사(광주일보 3월 5일자 3면)를 떠올렸다.

이씨는 “의료인으로서 언제가 코로나19와 다른 어떤 감염병이 유행하더라도 광주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갖게 하는 기사였다”며 “이 같은 소식은 지역 언론이 말해줘야만 알 수 있는 소식”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광주일보 문화매거진 '예향'의 열혈 구독자이기도 하다. 예향을 통해 먹거리, 문화계 인물, 숨은 여행지 등 다양한 이야기를 접하고, 주말이면 예향에 소개된 명소로 가족끼리 여행을 가기도 한다.

이씨는 “옛날 ‘빨갱이’ ‘깡패’ 등 오명을 쓰고 기피 지역으로 몰렸던 호남이 요즘 전국 곳곳의 사람들이 찾아오는 명소로 탈바꿈했다. 곳곳이 호남을 알려 온 광주일보가 세운 업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혔다.

이씨는 “나를 믿고 진료받으러 오는 환자들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지도 못한다(웃음)”며 “광주 시민으로서 호남 소식 1번지 광주일보를 앞으로도 꾸준히 구독할 것”이라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지역 정론지로서 사실을 왜곡·편향 없이 밝혀내고, 잘못된 것을 꾸짖으며 미래 지향적인 뉴스를 생산하길 바란다”는 등 애정 어린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100년 신문을 향하는 광주일보가 앞으로 펜으로 세상을 바로잡고, 기성세대뿐 아니라 새로운 세대에게도 호남의 등불로 자리잡길 기대합니다. 우리 후손이 더 좋은 조건과 환경에서 풍요로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광주일보가 앞장서서 호남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초교에 수제 마스크 1800매



광주시 서구 차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직접 만든 면마스크 1800매를 운천·치평·계수초등학교에 전달했다. <서구제 제공>

aT, 전국재해구호협회에 1억원 친환경농산물 상품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이병호·오른쪽)는 최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임원과 간부진이 반납한 급여로 마련한 1억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상품권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aT 제공>

S&P 프랜차이즈, 호남대 외식조리과학과에 장학금



호남대학교 외식조리과학과(학과장 김영근)는 지난 17일 ㈜S&P 프랜차이즈(대표 선영래)로부터 매 학기 300만원씩, 1년에 600만원을 지속적으로 지원받는 장학금 기탁식을 가졌다. <호남대 제공>

‘국민배우’ 김수미, 전남도 홍보 앞장

홍보대사 위촉...친환경 농수특산물·관광자원 알리기 역할

지난 17일 전남도청에서 김영록 전남지사가 영호배우 김수미씨를 전남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김씨는 드라마 ‘전원일기’ 일출염니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으며, 최근 요리 프로그램 ‘수미네 반찬’을 통해 전라도 엄마의 구수한 입담과 정감 있는 요리솜씨를 발휘해 젊은 층에게도 친숙한 이미지로 전남 홍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무보수 명예직인 전남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될 김씨는 앞으로 전남산 농수산물과 맛있는 음식, 관광자원 등 전남의 매력을

전국에 알릴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김씨는 위촉식에서 “전남과 인연을 맺고 전남을 대표한 홍보대사까지 맡게 돼 무척 기쁘고 기대된다”며 “앞으로 전남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유의 카리스마와 구수한 입담으로 오랜 세월 국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김수미씨를 홍보대사로 모시게 돼 매우 기쁘다”며 “이번 위촉을 계기로 전남 친환경 농수산물과 관광자원의 대중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7일 집무실에서 탤런트 김수미씨를 전라남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있다. 김씨는 전원일기, 가문의 영광, 친정엄마, 수미네반찬 등으로 대한민국 대중문화를 이끈 연예인이다. 앞으로 2년 동안 전라남도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전남도 제공>

적 인지도를 높이고, 전남의 숨은 매력을 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겠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사후 76년만에 오른 ‘골프 명예의 전당’

여성 운동 앞장 골퍼 매리언 홀린스, 클래스 공헌자 부문 선정

여성 운동에 앞장섰던 골퍼 매리언 홀린스가 세상을 떠난 뒤 76년 만에 세계 골프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골프 명예의 전당은 18일(한국시간) 2021 클래스 공헌자 부문에 홀린스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1년 클래스에서는 타이거 우즈(미국)에 이어 두 번째 입회자다.

1892년 태어난 홀린스는 골퍼뿐 아니라 승마, 자동차 경주에도 능숙했다.

골프에서는 1921년 US여자아마추어 챔피언십에서 우승했고, 1932년 처음으로 열린 영국과의 골프 대항전 커티스컵에서 미국대표팀 단장 겸 선수로 활약했다.

여성 권리 찾기 운동에도 앞장섰던 홀린스는 롱 아일랜드에 여성 전용 골프, 테니스 클럽을 만들었다. 당시에는 이 같은 클럽에 여성이 입회하는 것이 금지됐다.



골프 코스 설계로도 활동한 그는 메이저 대회 마스터스 토너먼트가 열리는 오거스타네셔널골프장 건설에도 힘을 보탠 것으로 알려졌다. 찰리 채플린, 스펠서 트레이시 등 당대 유명 배우들과도 친분이 깊었던 홀린스는 1944년 51세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연합뉴스

인사

- ◆장성군
 - ◇4급 승진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 ◇5급 승진 ▲환경위생과장 안보현



동구자원봉사센터-광주환경공단 자원봉사 협약

(사)동구자원봉사센터(이사장 조상권)와 광주환경공단(이사장 김강열)이 최근 지역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자원봉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상호협력력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공동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광주환경공단은 광주전 등 환경정화활동과 저소득층·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에 자원봉사를 수행하게 된다. 조상권 이사장은 “코로나19 극복의 현장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주고 계신다”면서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인 사랑과 나눔으로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있듯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단체와 봉사활동 협약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1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최해규·최은애씨 차남 종옥군, 이경(대림종합건설 회장)-국춘화씨 차녀 유현양=25일(토) 낮 12시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컨벤션홀.

▲윤봉근(전 광주시의회 의장)·최영은(교사)씨 장남 자민군, 배동오(건설회사 대표)·박명숙씨의 삼녀 서영양=25일(토) 오후 5시 30분 광산구 수완동 드메르웨딩홀 2층.

알림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프로그램 신청=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아선, 취업교통비 지원 등 취업지원 및 긴급원호, 숙식제공,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청소년전화 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일기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학대 신고=언제든 노인학대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

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추진사업=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등 매 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사랑이루움동조화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인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사무지원 062-369-4009.

▲지역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식식 등 제공 062-522-9976.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클리닉'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 오후 5시 061-285-1161.

▲화순 호사랑 노인복지센터 무료 방문=중풍이나 치매 등의 병으로 고통받는 화

순 거주 노인들의 무료 방문 목욕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 061-373-8865.

모집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061-320-7024.

▲시니어플래너지도사(자격증)=시·군·구 자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010-5522-9700.

▲블로그 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스마트폰 활용가능자 수시모집, 5~6명이면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블로그 창업동호회 062-511-0030.

▲인생이모작 카운슬러=인생2막 생애재설계, 은퇴 신중년 상담에 관심 있거나 교육경험이 있는 48~58세 남녀 모집, 실버세

조, 치매예방 놀이, 노후생활 관련 강사 등, 한국50+ 희망발전소 010-2626-5018.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 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한국범죄방지지도사 자격증 무료 취득=성별, 연령 제한 없음. 광주시 금남로 5가 169번길 호남분부 062-515-7521.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정왕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가출, 학대 등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를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부음

▲이일신씨 별세, 이현필·현돈·경선씨 부친상, 김미영·박미경씨 시부모상, 한상록씨 빙부상=발인 21일(화) 오전 7시 30분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062-231-8901.